‘내우외환’ 속 제1야당 위상 재건 어깨 무겁다

〈계파갈등〉 〈안철수 신당설〉

‘김한길號’ 민주당의 과제

계파 초월 탕평 인사로 당 혁신 시급
10월 재·보선 안철수 협력 이끌어야

민주당은 당의 새 얼굴로 비주류의 김한길 의원을 선택했다. 필승 분위기에서 총선과 대선을 주도해 놓고도 패배한 친노(친노무현) 주류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새로운 민주당을 이끌게 된 ‘김한길호’의 앞길에는 암초가 산재해 있다.

우선 신임 김한길 대표는 지난해 총선에서부터 시작해 대선, 그리고 최근 4·24 재·보선에 이르기까지 연전연패의 수렁에 빠져 난파 단계에 있는 민주당을 재건해야 한다.

그러나 당내 계파갈등이 수습될 기미가 없는 것이 암울한 현실로 김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또 여의도에 입성한 안철수 의원이 독자세력화 가능성을 키우며 제1야당인 민주당을 위협하고 있다.

◇계파갈등 수습=김 대표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아래 인사와 예산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강력한 리더십으로 쇄신을 단행할 수 있게 됐다. 개혁 작업의 1차 성패는 계파 간 갈등을 극복하고 당의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는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김 대표는 경선 기간 내내 “가슴에 달린 ‘친노’ ‘비노’의 명찰을 쓰레기통에 버리자”고 외쳐온 만큼 계파 갈등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파를 초월한 능력위주의 탕평 인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안일함과 관료주의적 시스템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당 사무처 조직에도 대대적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와 관계 설정=김 대표가 안철수 의원과 꽤 친밀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계 설정에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안 의원의 민주당 입당을 기대하며 ‘러브콜’을 보내왔지만 당분간은 경쟁적 관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친노가 당을 이끌었던 과거보다는 안 의원과 관계가 원활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 대표는 경선과정에 당을 철저하게 혁신해 안철수 지지세력을 먼저 끌어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안 의원도 결국 민주당과 같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당장 통합은 어렵다는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은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손을 맞잡고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승조, 조경태 최고위원, 김한길 대표, 우원식, 신경민 최고위원. /연합뉴스

◇10월 재·보선 첫 시험대=김 대표 리더십의 1차 시험대는 10월 재·보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선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단순한 선거패배가 아니라 야권의 새 판짜기에서 주도권을 상실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는 김 대표 본인의 정치적 운명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만한 중요한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제1야당의 당수인 김 대표는 대여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새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이 처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준비해온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여당을 견제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모습으로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차기 대선’을 기약할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새 지도부 프로필

‘만년 비주류’ 꼬리표 떼고 중심에 … ‘父子 당수’ 진기록

김한길 대표

지난해 6·9 전당대회에서 선전을 하고도,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이해찬 전 대표에게 석패한 지 1년만에 당권을 거머쥐었다.

선친인 김 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에 이은 ‘부자(父子) 당수’ 탄생이라는 진기록도 세우게 됐다.

‘전략 기획통’, ‘선거기획의 귀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로 참모형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제 자신만의 브랜드 정치를 해야할 위치에 올랐다.

15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1997년 대선 캠페인 전반을 기획,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탤런트인 부인 최명길씨와 2남. ▲일본 도쿄(60) ▲건국대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화관광부 장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15·16·17·19대 의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스타 앵커’ 출신 … 여당 실세 꺾고 국회 입성한 초선

신경민 최고위원

‘스타 앵커’에서 제1 야당의 대변인으로 변신하며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초선 의원.

MBC 방송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정치부 등을 거쳤으며 워싱턴특파원, 보도국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19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 선거구에 출마, 3선의 여당 실세인 새누리당 권영세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전북 전주(60) ▲전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MBC 뉴스데스크 앵커 ▲민주통합당 대변인 ▲19대 국회의원 ▲부인 정순옥(55)씨와 1남1녀.

민주당의 불모지 부산에서 3선 성공한 소장파 중진

조경태 최고위원

민주당의 불모지인 부산에서 3선에 성공한 소장파 중진.

부산에서 3수 끝에 지역적 열세를 딛고 17대 총선에서 36세의 젊은 나이로 당선된 뒤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선 ‘문재인 5대 불가론’을 주장하며 출마했다가 컷오프의 벽을 넘지 못했다.

▲경남 고성(45) ▲경남고 ▲부산대 토목공학과 ▲제16대 대통령선거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책보좌역 ▲17·18·19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원내 부대표

변호사 출신 천안서 3선 … 국가균형발전에 소신 강해

양승조 최고위원

천안에서 내리 3선에 성공한 변호사 출신 정치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소신이 강해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국가균형발전·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손학규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내 당내에서는 ‘손학규계’로 분류되지만 지난해 당 대표 선거에서는 이해찬 후보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충남 천안(54) ▲성균관대 법학과 ▲변호사 ▲17·18·19대 국회의원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민주당 원내 부대표 ▲민주당 대표비서실장

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 … 개혁성향 강한 재선 의원

우원식 최고위원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서울시의원을 거쳐 국회에 진출한 개혁성향의 재선 의원.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로 분류되는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 몸담았으며,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제4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해 17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을 지역에서 당선, 원내에 입성했다.

▲서울(56) ▲연세대 토목공학과 ▲제4대 서울시의원 ▲17·19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원내기획부대표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원내 수석부대표

日日만평

- 김종두

다 끝났냐?!

“선거에서 이기는 민주당 만들겠다”

김한길 대표 일문일답

민주당 김한길 신임 대표는 지난 4일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해 ‘경쟁하는 동지적 관계’로 규정하고 ‘선거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안 의원과의 관계설정은.

▲민주당이 혁신하는 과정을 통해 경쟁할 것이고, 새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하는 동지적 관계다.

-계파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민주당 구성원들이 계파 정치의 폐해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해소돼가는 과정을 겪을 것으로 생각한다.

-친노 책임론을 적시한 대선평가 보고서에 대한 입장은.

▲비대위 보고서를 공식 접수한 것을 뒤집을 생각은 전혀 없다.

-10월 재·보선 승리 전략은.

▲추구하는 뜻이 아무리 훌륭해도 선거에서 지기만 하는 정당은 죽어가는 정당이다. 이겨가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 당 대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다. 10월 재·보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야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

▲제1야당의 책무인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야무지게 하겠다. 또한, 안보·민생 문제에선 국익을 위해서는 적극 협력하겠다. 여야 국정협의체가 설치된다면 소모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극 해소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남북 문제 해법은.

▲개성공단을 볼모로 한반도 평화를 해칠 수 있다는 북한의 입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경고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말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제목만 갖고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루 빨리 확정해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계획은.

▲깊이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당헌·당규가 정한 5가지 분야(노동·여성·청년·노인·지역)의 대표성에 충실히 맞춰 인선하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6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7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선릉점(선릉역 2번 출구):02)985-183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타리 홈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스꾀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209-4400 남양주점(평내 호평역 앞):070)8829-9903 부산 서면점(서면로타리):051)818-8800 서면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타리):052)2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타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이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 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금남로 47역 사거리):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타리):063)252-5728 군산점(구 시청정문 앞):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타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2-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심원로타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6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타리):064)753-438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 광주점(금남로 47역 사거리)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점(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